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김 정 석**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심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파장이 부각됨에 따라 출산관련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 위기라는 전사회적 현상 속에서 개인의 출산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출산행위에 관련된 요소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상황, 출산관련 생활사건변수, 시부모 및 친정부모 생존여부,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출산아수가 아니라 출산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한편, 현재의 출산아수별로 출산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을 추출해 분석해 본 결과, 첫째아 계획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둘째아 계획에는 가구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이는 둘째아 계획이 주어진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셋째아 계획은 남아의 존재여부와 이상자녀의 성 구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가 여전히 상당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출산아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기제가 차별적임을 의미한다. 출산계획의 출산아수별 차별적인 기제는 출산행위에 대한 깊이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같은 기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계량적인 접근방식과 더불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연구(특히 집단초점토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단어: 저출산, 추가자녀, 출산계획과 행위, 출산계획 차별성, 출산계획기제

I. 머리말

한국사회의 급격한 출산을 하락은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관련연구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출산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의 출산력수준 및 변화에 따라 그 부침을 함께 한 것

* 이 논문은 2006년 동국대학교 교내연구강화사업(2006-2026-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으로 보인다. 김두섭(2005, 2007)은 한국의 출산력 변화를 출산수준의 하향정도와 그 기제에 따라 제1차 출산력 변천과 제2차 출산력 변천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출산관련연구는 대체로 제1차 변천에 해당하는 198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최근 초저출산이 등장하는 시점까지 한동안 그 활기를 잃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줄곧 지속된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정책적, 학문적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근래의 연구들은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구분가능하다. 거시적 접근들은 대체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출산력 변천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박상화·천대우, 2004; 최경수, 2004; 강경숙 외, 2005; 김태현 외, 2006). 이에 비해, 미시적 접근은 대체로 횡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개인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려 한다(강복수 외, 2001; 은기수, 2001a, 2001b; 이성용, 2003; 김영주, 2005; 윤소영, 2005; 조혜자·방희정, 2005; 차경욱, 2005). 최근에는 한국의 IMF 경제위기가 개인들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돋보이는데(공선영, 2006; 이성용, 2006; 김두섭, 2007), 이는 거시적 환경변화가 미시적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출산율하락과 출산행위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출산행위를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출산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산계획과 실제 출산행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출산행위가 반드시 계획된(planned) 결과가 아니듯이, 출산계획이 반드시 출산행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통제가 상당 수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계획은 출산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출산계획이 출산행위와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출산행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Mitchell and Gray, 2007). 한편, 출산계획은 향후 출산행위에 대한 전망을 획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미 이루어진 출산행위에 대한 분석은 과거 행위에 대한 이해에 그친다면, 앞으로의 출산에 대한 계획 분석은 현재를 통해 미래의 행위를 전망토록 해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계획과 출산행위간의 차이는 항상 발생할 것이며, 향후 출산행위를 현재의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출산계획을 분석초점으로 두는 이 연구에서는 또한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추가자녀에 대한 출산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현존 출산아수에 따라 차별적(differential)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출

산아수별 추가자녀 출산행위나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은 최근 생애주기적 관점을 이용한 접근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는 기혼여성이나 이들 부부의 소득능력과 효용극대화가 출산시기와 출산간격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예. 이삼식 외, 2005a). 한편, 각 출산아수에 따른 접근은 아니지만 특정 자녀수에 초점을 두고 향후 추가자녀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연구 등도 발견된다(예. 천혜정,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출산아수별로 추가출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현존 자녀의 수를 추가출산계획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출산아수에 따른 추가출산으로의 진도(progression)에 대한 분석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출산아수별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은 무자녀에서 한자녀, 한자녀에서 두자녀, 두자녀에서 세자녀로의 이행 정도와 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경험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기혼여성들의 첫출산(무자녀에서 한자녀로의 이행) 시점(혹은 결혼과 첫출산간의 간격)은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결혼코호트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은기수, 2001a, 2001b).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출산 자체는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조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20-44세 사이의 기혼여성 중에서 첫출산을 하지 않은 비율은 7.2%에 불과하다(이삼식 외, 2005b: 389). 이 비율이 갓 결혼한 여성이나 불임여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첫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유계숙·정현숙, 2002) 등에서도 첫출산에 대한 선택의지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첫출산은 사회집단간에 그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에게는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첫출산에 비해 둘째아 출산부터는 그 행위에 있어 비용편익(cost-benefit)의 사 고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과 양육비용의 증가와 같은 경제학적 요인 외에도 첫아이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인해 보다 계획적이고 계산적인(rational) 출산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마도 첫아이의 출산과 양육 경험은 첫아이 출산 이전에 가졌던 자녀에 대한 낭만적인 요소를 크게 감소시키는 한편, 보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출산을 인식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자녀양육의 경험과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육아협력이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출산계획을 높일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박정희·장영애, 2003). 또한 출산행위가 보다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함에 따라 부부간의 의견차이도 둘

째아의 출산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천혜정, 2005). 따라서 첫출산에 비해 둘째아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의 비율은 낮을 것이다. 또한 첫출산계획에 있어 기혼여성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면 둘째아 계획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분명한 차이가 기대된다.

현재 둘째아를 가진 여성 중에서 셋째아를 계획하는 여성들은 첫째아나 둘째아를 기대하는 여성들과는 다른 기제에 의해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평균 자녀수가 1명 혹은 2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셋째아를 출산하려는 여성들은 통계적 의미에서 평균적인 성격을 벗어난다. 아마도 이들에게서는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특정 성의 자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추가자녀계획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남아에 대한 강한 선호가 출산저하의 장애요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김두섭(2007)은 한국에서 강하게 발견되는 성선호는 태아의 성감별과 성선별 인공유산을 통해 출산력 수준을 하락시키는 게 일조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출산을 하락이 급격한 오늘날, 남아에 대한 성선호는 약해지고 있으며 아들을 낳기 위해 다수의 자녀를 두는 경우는 드물다(이성용,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여성들에게 아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이 첫째아나 둘째아로 남아를 두지 못할 경우 셋째아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존 출산아수에 따라 추가 자녀를 계획하는 비율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 가정한다. 추가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언급한 것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이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상황, 출산관련 생활사건변수, 시부모 및 부모생존여부,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 등이 포함된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상황에는 기혼여성의 거주지역, 교육수준, 현재 연령,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 남편의 취업 및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주택소유 등이 속한다. 거주지역, 교육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이미 차별출산력에 관한 많은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부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도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수들이다. 특히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능력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출산행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산관련 생활사건은 출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구학적 사건들로 결혼과 출산으로 구성된다. 결혼연령, 출산연령, 출산간격 등은 출산행위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은기수, 2001a, 2001b). 여기에서는 결혼연령과 함께 출산연령(유자녀 여성들의 경우)을 살펴보고 있다. 시부모 및 부모생존여부는 기혼여성에게 출산을 위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양육보조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가령 시부모의 존재는 자녀(특히 남아)출산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양육보조자의 효과는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시부모 보다는 친정부모,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로는 어린자녀의 유무, 기존자녀의 성 등을 비롯하여 이상자녀수도달여부, 이상자녀의 성 구분여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II. 자료와 변수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5월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의 8,000여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에서 만 44세까지의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 태도 및 행태 등을 묻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자들의 출산계획이 기혼자들의 그것에 비해 현실적이지 못함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에게 한정하여 출산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분석대상이 되는 기혼여성들도 그 연령의 상한선을 35세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상한선 설정은 기혼여성들 내에서의 연령차에 따른 출산의식과 행위의 변이를 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또한 연령이 높은 층의 여성들은 대체로 출산을 마무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출산계획이 실질적인 출산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연령의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이다.

이와 함께 이들 여성을 현재 출산아가 없는 여성(이하 무자녀 여성), 자녀가 한 명 있는 여성(이하 한자녀 여성), 자녀가 두 명 있는 여성(두자녀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사례는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선별된 분석대상에서 해당 변수에 결측치를 보인 몇 사례를 제외한 후 무자녀 여성 249사례, 한자녀 여성 456사례, 두자녀 여성 831사례를 확보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를 출산현황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는 자녀추가출산계획

<표 1> 변수정의와 사례분포

	무자녀 여성 (n=249)	한자녀 여성 (n=456)	두자녀 여성 (n=831)
<종속변수>			
자녀추가계획(1=있음, 0=없음)	81.1%	55.5%	8.4%
<사회인구학과 경제변수>			
거주지역(1=시부, 0=군부)	85.5%	89.5%	82.3%
교육수준(준거: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37.3%	43.7%	63.7%
전문대학	34.9%	23.0%	16.2%
대학교 이상	37.8%	33.3%	20.1%
현재 연령	28.6세	30.4세	32.2세
여성의 종사상지위(준거: 상용직)			
자영/고용주	3.2%	2.6%	4.3%
무급가족종사	3.2%	3.9%	6.3%
상용직	35.7%	20.2%	14.8%
임시/일용	14.9%	9.4%	12.6%
비경제활동	43.0%	63.8%	62.2%
남편의 종사상지위(준거: 상용직)			
자영/고용주	16.1%	22.6%	30.1%
무급가족종사	—	0.4%	—
상용직	65.5%	64.0%	56.7%
임시/일용	13.7%	9.0%	10.2%
비경제활동	4.8%	3.9%	3.0%
가구소득(준거: 월평균 175만원 이하)			
월평균 175만원 이하	18.9%	24.6%	22.9%
월평균 176-235만원	18.9%	23.9%	25.2%
월평균 236-293만원	18.5%	12.3%	14.6%
월평균 294-440만원	33.7%	25.0%	25.3%
월평균 441만원 이상	10.0%	14.3%	12.2%
주택소유(1=있음, 0=없음)	43.8%	54.4%	62.3%
<생활사건연령변수>			
결혼연령	26.9세	26.2세	24.5세
첫째아 출산시 연령	—	27.3세	25.6세
둘째아 출산시 연령	—	—	27.9세
<시부모 및 부모생존변수>			
친정아버지(1=생존, 0=사망)	77.1%	73.9%	67.1%
친정어머니(1=생존, 0=사망)	93.6%	94.1%	89.9%
시아버지(1=생존, 0=사망)	79.9%	72.4%	59.3%
시어머니(1=생존, 0=사망)	94.0%	91.7%	88.0%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			
2세 이하 자녀(1=있음, 0=없음)	—	60.1%	36.0%
첫째아 남아(1=예, 0=아니오)	—	55.7%	55.1%
둘째아 남아(1=예, 0=아니오)	—	—	55.0%
이상자녀수 1명 이상	94.0%	—	—
이상자녀수 2명 이상	—	91.0%	—
이상자녀수 3명 이상	—	—	32.5%
이상자녀 성의 구분	29.7%	22.4%	31.2%

으로 ‘현재의 자녀 이외에 또 다른 자녀를 낳을 것인가’이다. 자녀추가출산계획은 조사표 문항 중에서 ‘귀하는 앞으로 (추가)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없다’ 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로 양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를 계획이 없는 경우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자녀계획은 출산에 대한 의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출산현황별로 자녀추가계획을 밝힌 여성들의 분포를 보면 무자녀 여성은 81.1%, 한자녀 여성은 55.5%, 두자녀 여성은 8.4%이다. 따라서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대다수의 기혼여성은 앞으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자녀가 한 명인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두 번째 자녀를 두려고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여성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의 자녀를 두지 않으려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경제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는 거주지역, 교육수준, 현재 연령, 여성과 그 배우자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거주지역은 시부거주와 군부거주로 이분하였는데, 대부분의 기혼여성이 시부에 거주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두자녀 여성에 비해 한자녀 여성에게서, 한자녀 여성에 비해 무자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연령분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분석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상한연령을 35세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평균연령은 무자녀 여성 28.6세, 한자녀 여성 30.4세, 두자녀 여성 32.3세이다. 또한 무자녀 여성의 하한연령은 20세, 한자녀 및 두자녀 여성의 하한연령은 25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없거나 적을수록 평균연령은 낮으며, 교육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여성과 그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로 측정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대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편, 상용직 여성의 비율은 자녀가 많을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육아와 취업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남편의 경제활동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용직의 비율이 줄고,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수에 따른 남편경제활동의 차이라기보다는 남편연령(여성의 연령과 상관관계에 있는)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은 다섯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의 최하위 범주인 175만

원 이하는 전체 평균가구소득의 60%미만에 해당한다. 그 다음 범주인 235만원 이하는 80%미만, 293만원 이하는 100%미만, 440만원 이하는 150%미만에 해당한다. 최상위 범주인 441만원 이상은 전체 평균가구소득의 150%이상에 해당한다. 출산아수별 여성들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무자녀 여성들의 평균가구소득이 한자녀 여성이나 두자녀 여성의 그것에 비해 그다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체평균가구소득에 해당하는 294만원 이상의 비율을 본다면 무자녀 여성들의 가구소득(33.7%+10.0%)이 한자녀 여성(25.0%+14.3%) 혹은 두자녀 여성(25.3%+12.2%)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무자녀 여성에게서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 소유율을 살펴보면 무자녀 여성보다는 한자녀 여성에게서, 그리고 한자녀 여성보다는 두자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앞으로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사건으로는 결혼과 기존출산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연령을 통해 추가자녀계획여부를 설명하고자 한다. 결혼연령은 세 여성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무자녀 여성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편 한자녀 여성들의 출산평균연령은 27.3세로 이들의 평균결혼연령(26.2세)과 1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혼연령과 첫출산 연령간 간격은 두자녀 여성에게서도 관찰된다. 또한 이들에게서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간격도 2년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출산과 출산간 간격이 매우 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친정부모와 시부모 또한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출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 이후 육아를 나눌 수 있는 보조자의 기능도 할 수 있다. 특히 분석대상의 여성들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특히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젊은 노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출산과 육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생존비율은 다소 낮는데, 이는 남녀간의 수명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에 관한 변수로는 현존자녀의 연령과 성, 그리고 이상자녀수와 이상자녀의 성구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존자녀에 관한 사항들은 물론 유자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데, 우선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한자녀 여성에게 이 변수는 자녀의 연령이 2세 이하인가를 묻는 것이 되며, 두자녀 여성에게는 둘째아의 연령이 2세 이하인가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연령의 자녀존재는

최근의 2년간 출산경험을 파악하는 셈이다. 한자녀 여성에게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는 비율은 60.1%이며, 두자녀 여성에게서 해당 비율은 36.0%이다. 따라서 두자녀 여성에 비해 한자녀 여성이 최근에 출산경험을 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존자녀의 성은 남아인가를 통해 접근하였다. 한자녀 여성의 경우 남아인 비율은 55.7%이다. 두자녀 여성의 경우 첫째아가 남아인 비율은 55.1%, 둘째아가 남아인 비율은 55.0%로 나타난다. 따라서 남아비율은 첫 출산이나 두 번째 출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정연령의 자녀유무와 이들의 성이 이미 출산한 자녀들의 사항이라면, 이상자녀수와 이상자녀에서의 성 구분은 기혼여성들의 태도나 의식에 관한 사항이다. 이상자녀수는 현존자녀가 이상자녀수를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무자녀여성에게는 이상자녀수가 1명이상, 한자녀 여성에게는 이상자녀수가 2명 이상, 두자녀 여성에게는 이상자녀수가 3명이상인가를 측정하였다. 한편, 이상자녀에서의 남녀구분은 특정 성(대체로 남아)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무자녀 여성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자녀가 1명 있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았으며 이상자녀의 성을 구분하는 비율은 29.7%였다. 한편, 한자녀 여성들의 경우 이상자녀수가 둘 이상이라는 비율이 91.0%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성을 구분하는 비율은 22.4%였다. 두자녀 여성의 경우 해당비율은 각각 32.5%와 31.2%였다. 두자녀 여성의 경우 이상자녀수가 3명이상이라는 비율이 적지 않으며, 이상자녀의 성을 구분하는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들을 앞서 살펴본 자녀출산계획과 견주어 볼 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 이상자녀수와 이들이 계획하는 자녀수간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추가자녀출산계획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

추가자녀출산계획 분석은 앞으로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은 기혼여성의 현존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여성, 한자녀 여성, 두자녀 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자녀수별 모형에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경제적 상황, 부모세대의 생존여부 등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에 관한 변수들은 현존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는 무자녀 여성, 한자녀 여성, 두자녀 여성의 순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겠다.

1. 무자녀 여성의 자녀출산계획

현재 기혼이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좌측 칼럼(모형1)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 칼럼(모형2)은 이들 변수와 더불어 부모생존여부와 자녀관련 현황 및 의식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상황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를 살

<표 2> 무자녀 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로짓회귀분석(n=249)

	모형1			모형2		
	b	s.e.	exp(b)	b	s.e.	exp(b)
상수	7.822***	2.031	2493.892	-7.408	60.489	0.001
시부(vs. 군부)	0.556	0.493	1.743	0.032	0.595	1.033
교육수준(준거: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0.600	0.497	1.822	0.570	0.570	1.769
대학교 이상	0.742	0.465	2.100	0.495	0.519	1.640
현재 연령	-0.281***	0.065	0.755	-0.408***	0.085	0.665
여성의 종사상지위(준거: 상용직)						
자영/고용주	-0.015	0.994	0.985	0.519	1.148	1.680
무급가족종사	-0.543	0.972	0.581	-0.578	1.098	0.561
임시/일용	-0.418	0.563	0.658	-0.260	0.628	0.771
비경제활동	0.506	0.531	1.659	0.705	0.606	2.024
남편의 종사상지위(준거: 상용직)						
자영/고용주	-0.463	0.669	0.629	-0.367	0.766	0.693
임시/일용	0.329	0.578	1.389	0.263	0.657	1.301
비경제활동	7.273	16.396	1440.899	7.821	15.684	2492.424
가구소득(준거: 월평균 175만원 이하)						
월평균 176-235만원	0.579	0.602	1.784	0.557	0.676	1.745
월평균 236-293만원	1.149*	0.665	3.156	1.078	0.761	2.937
월평균 294-440만원	0.659	0.581	1.932	0.574	0.693	1.776
월평균 441만원 이상	0.251	0.774	1.285	0.459	0.934	1.583
소유주택 있음(vs. 없음)	0.403	0.385	1.497	0.240	0.436	1.271
결혼연령				0.336***	0.095	1.399
친정아버지 생존				0.359	0.481	1.432
친정어머니 생존				-0.335	0.801	0.715
시아버지 생존				-0.494	0.560	0.610
시어머니 생존				1.357	0.824	3.885
이상자녀수 1명 이상				9.406	60.439	12161.425
이상자녀 성의 구분				0.633	0.480	1.884
χ^2 (d.f.)			44.552 (16)			69.675 (23)

주: * p<0.10, ** p<0.05, *** p<0.01

펴보면 현재 연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b=-0.281^{***}$). 이는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산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변수로는 가구소득에서 소득중간범주가 하위범주에 비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가구소득의 효과가 한 범주에 그칠 뿐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낮다($b=1.149^*$). 따라서 첫출산에 대한 계획은 생물학적인 연령에 의해 제한되기는 하나, 그 외 사회인구학적 혹은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표 2>의 우측 칼럼에서 결혼연령과 부모생존여부 및 이상자녀수 변수 등을 포함시켜 확장한 모형에서도 여전히 현재 연령은 출산계획과는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0.408^{***}$). 한편, 모형확장에 따라 가구소득 중간범주의 효과는 그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추가된 변수 중에서는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b=0.336^{***}$), 그 외의 변수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혼을 늦게 한 여성들이 출산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자녀를 갖는데 있어 노산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의도와 관계가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기혼여성들의 경우, 현재의 연령과 결혼연령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만이 두드러지며, 그 외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상황, 부모생존여부, 이상자녀에 관한 의식 등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여성들이 1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을 이상적이라 생각하며, 실제로 상당수가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첫 아이에 대한 출산계획은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출산을 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한자녀 여성의 추가자녀출산계획

무자녀 여성의 첫째아 출산계획에 이어 한자녀 여성의 둘째아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앞서 살펴본 무자녀 여성과는 달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상황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 관찰된다. <표 3>의 모형 1에 의하면 교육수준(전문대학 vs. 고등학교 이하), 현재 연령, 남편의 종사상 지위(임시/일용 vs. 상용직), 가구소득(월평균 294-440만원 vs. 175만원 이하) 등에 따른 차이가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의 중간범주가 준거 범주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한자녀 여성들의 둘째아

출산계획이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과 단선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가령 최고의 학력수준을 가지거나 최고의 소득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그 하위 집단에 비해 출산의지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현재

<표 3> 한자녀 여성의 추가자녀출산계획에 대한 로짓회귀분석(n=456)

	모형1			모형2		
	b	s.e.	exp(b)	b	s.e.	exp(b)
상수	6.649***	1.289	—	2.408	1.757	—
시부(vs. 군부)	-0.238	0.336	0.788	-0.044	0.353	0.957
교육수준(준거: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0.534**	0.266	1.705	0.372	0.286	1.451
대학교 이상	0.135	0.250	1.145	-0.054	0.281	0.947
현재 연령	-0.218***	0.040	0.804	-0.287***	0.078	0.750
여성의 종사상지위(준거: 상용직)						
자영/고용주	0.867	0.691	2.379	0.875	0.757	2.398
무급가족종사	0.325	0.605	1.385	0.510	0.661	1.666
임시/일용	-0.018	0.405	0.982	0.204	0.430	1.227
비경제활동	0.116	0.284	1.123	0.115	0.296	1.122
남편의 종사상지위(준거: 상용직)						
자영/고용주	-0.313	0.268	0.731	-0.278	0.287	0.757
무급가족종사	-0.307	1.533	0.736	0.828	1.568	2.290
임시/일용	-0.882**	0.378	0.414	-0.665*	0.402	0.514
비경제활동	0.146	0.535	1.158	-0.001	0.556	0.999
가구소득(준거: 월평균 175만원 이하)						
월평균 176-235만원	0.342	0.300	1.408	0.355	0.318	1.427
월평균 236-293만원	0.346	0.368	1.413	0.338	0.386	1.403
월평균 294-440만원	0.570*	0.328	1.768	0.566	0.348	1.762
월평균 441만원 이상	0.395	0.389	1.484	0.472	0.415	1.603
소유주택있음(vs. 없음)	-0.035	0.213	0.965	0.120	0.229	1.127
결혼연령				0.044	0.089	1.045
첫째아 출산시 연령				0.083	0.104	1.087
친정아버지 생존				-0.373	0.266	0.689
친정어머니 생존				0.934*	0.485	2.545
시아버지 생존				-0.028	0.249	0.972
시아머니 생존				0.503	0.396	1.654
2세 이하 자녀 있음(vs. 없음)				0.128	0.370	1.137
첫째아 남아(vs. 여아)				-0.390*	0.218	0.677
이상자녀수 2명 이상				1.874***	0.444	6.514
이상자녀 성의 구분				0.354	0.267	1.425
χ^2 (d.f.)			51.783 (17)			93.756 (27)

주: * p<0.10, ** p<0.05, *** p<0.01

연령은 여기서도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0.218^{***}$). 이와 함께 남편의 종사상 지위 또한 흥미로운데, 상용직 남편에 비해 임시 혹은 일용직의 남편, 즉 불안정한 직장을 가진 남편들이 있는 경우 둘째아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는 주소득원이 되는 남편의 고용안정성이 추후 출산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제시된 <표 3>의 모형2는 모형1에다 결혼연령 및 첫째아출산연령, 부모생존 여부, 현존 자녀와 이상자녀에 대한 의식 등을 포함하여 확장하고 있다. 우선 언급한 변수추가에 따라 모형1에서 유의미했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의 효과가 상실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변수와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식변수간의 관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연령의 효과와 더불어 남편의 종사상 지위(임시/일용 vs. 상용직) 효과는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에 머무른다. 현재의 연령은 출산을 위한 실제 연령의 제한을 뜻하는 것으로, 남편의 불안정한 직장은 추후자녀계획 설립에 장애가 됨을 뜻한다.

모형2에 추가된 결혼연령과 첫째아 출산시 연령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연령은 현재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아 출산계획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친정어머니의 생존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한자녀 여성의 둘째아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b=0.934^*$). 이는 이미 한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추가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가용한 양육보조자(예. 친정어머니)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존자녀의 성도 추가자녀출산계획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데, 첫째아가 남아인 경우 둘째아 출산계획을 세울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다($b=-0.390^*$). 또한 이상자녀수를 2명 이상으로 보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둘째아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 자신들의 이상자녀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무자녀 여성들의 첫째아 출산계획과는 달리, 한자녀 여성들의 둘째아 출산계획은 남편의 고용안정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첫아이에 비해 둘째 아이부터는 경제적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 출산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고려는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첫째아가 남아인 경우 둘째아를 출산할 계획이 낮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선호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3. 두자녀 여성의 추가자녀출산계획

변수와 사례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자녀 여성 중에서 세 번째 자녀를 두겠다는 사례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과연 어떤 여성들이 이러한 소수에 속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두자녀 여성의 추가자녀출산계획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우선 모형1에 의하면, 두자녀 여성 중에서 추가자녀를 두겠다는 여성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경제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연령이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을 따름이다($b=-0.124^{**}$).

제시된 <표 4>의 모형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셋째아 출산계획은 결혼연령이나 이전 자녀의 출산연령, 부모 생존여부, 기존 자녀의 연령과 성구성, 이상자녀수와 이상자녀의 성구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결혼연령은 긍정적인 효과($b=0.397^{*}$)를, 그러나 둘째아 출산시 연령은 부정적인 효과($b=-0.334^{**}$)를 가진다. 따라서 결혼을 늦게 한 여성에게서 셋째아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효과는 현재 연령과 둘째아 출산시 연령에 의해 상쇄된다. 둘째아 출산시 연령은 최근 출산의 연령으로 현재 연령과 함께 출산에 대한 생물학적 제약을 의미한다. 부모생존여부 중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가 셋째아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b=1.490^{**}$). 이는 앞서 살펴본 한자녀 여성의 둘째아 출산계획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으로 추가 자녀를 계획함에 있어 양육보조자로서의 친정어머니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해석된다.

현존 자녀 중에서 2살 이하의 자녀존재는 최근의 출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에 출산을 한 여성들의 경우는 셋째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1.087^{**}$). 또한 어린 자녀의 존재는 그만큼 정신적, 물리적 부담이 많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셋째아를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모형2에서 분명한 것은 첫째아가 남아이거나($b=-0.955^{***}$) 둘째아가 남아이면($b=-0.583^{**}$) 셋째아를 낳을 계획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역시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여성들이 남아를 갖지 못한 경우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상자녀수가 3명 이상인 여성들의 경우에도 출산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b=1.289^{***}$). 그리고 이상자녀에서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는 경우도 셋째아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b=0.874^{***}$).

첫째아 출산계획이나 둘째아 출산계획에 비해 셋째아 출산계획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보편적인 출산에 가까운 첫째아 출산계획과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둘째아 출산계획에서와 같이, 양육부담을 나눌 수 있는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는 중요한 것

<표 4> 두자녀 여성의 추가자녀출산계획에 대한 로짓회귀분석(n=831)

	모형1			모형2		
	b	s.e.	exp(b)	b	s.e.	exp(b)
상수	1.860	1.710	6.423	4.017*	2.304	55.534
시부(vs. 군부)	-0.027	0.324	0.974	-0.159	0.351	0.853
교육수준(준거: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0.263	0.330	1.301	0.446	0.370	1.561
대학교 이상	-0.322	0.390	0.725	-0.260	0.421	0.771
현재 연령	-0.124**	0.051	0.883	-0.270***	0.089	0.763
여성의 종사상지위(준거: 상용직)						
자영/고용주	0.517	0.592	1.677	0.646	0.652	1.909
무급가족종사	0.417	0.575	1.518	0.519	0.653	1.680
임시/일용	-0.714	0.578	0.490	-0.942	0.623	0.390
비경제활동	-0.280	0.405	0.755	-0.460	0.442	0.631
남편의 종사상지위(준거: 상용직)						
자영/고용주	0.327	0.510	1.387	0.359	0.550	1.432
임시/일용	0.155	0.477	1.168	0.321	0.519	1.378
비경제활동	0.371	0.774	1.450	0.181	0.829	1.199
가구소득(준거: 월평균 175만원 이하)						
월평균 176-235만원	-0.225	0.372	0.798	-0.443	0.407	0.642
월평균 236-293만원	-0.099	0.439	0.905	-0.375	0.494	0.687
월평균 294-440만원	-0.314	0.415	0.730	-0.756	0.459	0.469
월평균 441만원 이상	0.138	0.506	1.148	0.031	0.534	1.031
소유주택 있음(vs. 없음)	-0.284	0.265	0.753	-0.426	0.295	0.653
결혼연령				0.397*	0.214	1.487
첫째아 출산시 연령				0.050	0.225	1.052
둘째아 출산시 연령				-0.334**	0.143	0.716
친정아버지 생존				0.251	0.311	1.285
친정어머니 생존				1.490**	0.670	4.436
시아버지 생존				-0.179	0.296	0.836
시아머니 생존				-0.268	0.425	0.765
2세 이하 자녀 있음(vs. 없음)				-1.087**	0.463	0.337
첫째아 남아(vs. 여아)				-0.955***	0.292	0.385
둘째아 남아(vs. 여아)				-0.583**	0.283	0.558
이상자녀수 3명 이상				1.289***	0.302	3.629
이상자녀 성의 구분				0.874***	0.298	2.396
χ^2 (d.f.)	19.357 (16)			98.673 (28)		

주: * p<0.10, ** p<0.05, *** p<0.01

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존자녀의 성도 추가출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셋째아 출산에서는 이상자녀의 성을 구분하는 것이 추가자녀계획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셋째아 출산계획은 남편의 고용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기존자녀의 성과 이상자녀에 대한 의식에 따른 차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IV. 정리 및 제언

이 연구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출산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출산행위에 집중한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앞으로의 출산계획을 분석하였다. 인간행위의 의도, 의향, 계획 등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기란 힘들다. 또한 출산계획이 앞으로의 출산행위를 예측하게 해 줄 수 있는 주요 지표임도 분명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출산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현재의 출산이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출산행위 요소들은 크게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상황, 출산관련 생활사건상의 연령, 시부모 및 친정부모의 생존여부,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 등으로 정리하여 이용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서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출산행위와 마찬가지로 출산계획에서도 이들 여성의 소가족 지향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자녀가 없는 여성들 대부분이 앞으로의 자녀출산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한자녀를 둔 여성들은 그 절반정도가 둘째아를 가질 계획을, 그리고 두자녀를 둔 여성 중에서 셋째아를 계획하는 비율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따라서 출산계획의 측면에서도 기혼여성들의 대부분이 자녀수를 1명 혹은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이수별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본 결과, 기혼여성의 현재 연령은 기존 출산수준과 무관하게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출산의 생물학적 제약과 위험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여성의 출산이수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혼 후 아직 자녀를 두지 않는 여성들에게서 현재 연령과 더불어 결혼 연령만이 자녀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들에

서는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을 늦게 한 여성들일수록 출산을 빨리 한다는, 결혼과 첫출산의 압착현상을 의미한다. 무자녀 여성들의 출산계획에서 흥미로운 점은 출산의 생물학적 장벽이라 할 수 있는 현재 연령과 결혼 연령 이외에 다른 변수들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기혼여성들에 있어서는 첫 출산(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은 여전히 보편적이며, 선택적 행동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점을 암시한다.

출산계획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한자녀 여성들의 경우, 현재 연령과 더불어 남편의 종사상지위, 친정어머니 생존, 아들의 존재, 이상자녀수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무자녀 여성들의 첫째아 출산계획에 비해, 한자녀 여성들의 둘째아 출산계획에서 선택적 요소가 많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첫째아 출산과 양육의 경험에서 오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둘째아 출산계획에 많이 반영된 탓으로 이해된다. 가령, 임신이나 일용직 남편이 있는 한자녀 여성들은 상용직 남편이 있는 여성들보다 둘째아를 계획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정어머니의 생존이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출산 후 양육보조자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자녀 여성의 둘째아 출산계획은 가구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자에 대한 기대 등과 함께 첫째아의 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첫째아가 남아인 경우 둘째아를 계획하는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 여성이 35세 이하로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남아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혼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추가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두자녀 여성의 셋째아 출산계획은 무자녀 여성이나 한자녀 여성들의 경우와 같이 현재 연령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편의 종사상 지위의 효과가 나타났던 한자녀 여성들과는 달리, 두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에는 경제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활사건상의 연령변수, 친정어머니의 생존, 어린 자녀의 존재, 기존자녀의 성구조, 이상자녀수 변수 등은 한자녀 여성들의 둘째아 출산계획에서보다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효과를 보인다. 이 중에서 둘째아 출산연령은 셋째아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현재 연령의 효과와 같이 생물학적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친정어머니의 생존이 가지는 효과는 한자녀 여성의 둘째아 출산계획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 따라서 셋째아 출산계획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이는 불분명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하더라도 양육보조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아 출산계획에는 2세 이하 자녀의 존재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최근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이 셋째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이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둘째아 출산계획에서 발견되었던 남아존재의 효과가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자녀 여성 중에서 첫째아가 남아이거나 둘째아가 남아인 경우 셋째아에 대한 출산계획은 훨씬 낮다. 이러한 남아의 효과는 이상자녀 성의 구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는데, 이상자녀에서 성을 구분한 여성들이 셋째아에 대한 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다. 또한 여기서도 한자녀 여성의 둘째아 출산계획과 마찬가지로 이상자녀수가 많은 여성들이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상의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아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 작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기혼여성이 출산을 하는 보편적 모습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둘째아 계획은 기존의 출산과 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둘째아 계획에서 발견되는 가구경제의 안정성과 양육보조자의 존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째아의 남아여부도 둘째아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에 따른 출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녀를 1명 혹은 2명 두는 상황에서 셋째아를 계획하는 여성들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양육보조자의 존재, 남아의 존재, 이상자녀의 성구조에 대한 생각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에게는 남아존재의 효과가 두드러짐으로써 통상적인 수준의 출산을 넘어선 추가출산은 남아선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현존 출산아수에 따라 추가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출산계획과 출산행위의 밀접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곧 출산아수별로 출산행위의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계획과 출산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출산아수에 따른 차별적인 기제(mechanism)에 대한 관심과 고려는 기존의 접근을 보다 심화시키는 한편 정교하게 다듬도록 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아수별 출산계획과 행위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산계획과 같이 의도나 의향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를 다룰 때에는 표준화된 측정항목으로는 깊이 있는 이해를 획득할 수 없다. 한편, 질적 연구에서 통계적인 대표성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편의적인 표본을 통해 일부 집단의 출산관련의식과 행위를 연구하기 보다는 보다 계획적인 표본구성을 통해 여러 사회집단(예, 출산아수와 사회계층적

구성)의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초점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통해 개인과 이들이 속한 집단의 의식과 행위를 함께 살펴 보고 비교해보려는 시도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된 계량적인 접근이 질적 연구와 함께 진행되었을 때 출산계획과 행위에 대한 이해가 상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경숙·변미희·정은미 (200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3): 127-145.
- 강복수·윤성호·이경수·김석범·강영아·황태운·김미경 (2001) “가임여성의 자녀 성 선호도 및 인식도와 남아선별출산강요 경험”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1): 7-15.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_____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 김영주 (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49-157.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1-23.
- 박상화·천대우 (2004) “우리나라 고령 출산의 변화 추이(1985-2003)에 관한 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7 : 101-105.
- 박정희·장영애 (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 유계숙·정현숙 (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윤소영 (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9-166.
- 은기수 (2001a)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 105-139.

- _____ (2001b) “첫 출산부터 마지막 출산까지 출산기간의 차별성” 《한국보건 통계학회지》 26(1): 14-26.
- 이삼식 외 (2005a)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 (2005b)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용 (2003) “남아 선호와 출산력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26(1): 31-57.
- _____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 조혜자·방희정 (2005)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여성의 관계역할” 《한국심 리학회지》 10(1): 95-112.
- 차경옥 (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천혜정 (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25-33.
- 최경수 (2004) “출산을 하라 추이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27(2): 35-59.
- Mitchell, D. and E. Gray (2007) “Declining Fertility: Intentions, Attitudes and Aspirations” *Journal of Sociology* 43(1): 23-44.

Parity Specific Approach to the Plan of Having an Additional Child

Cheong-Seok Kim

As the fertility level in Korea continues to drop with detrimental implications for the society, it has regained much attention of academics and policy makers. This study, building on the previous research on fertility behavior, attempts to explore the plan of young married women to have an additional child. While such plan is not always put into practice, it is still closely related to fertility behavior. In addition, it can provide useful clues to understanding behavior in the future. Utilizing a recent nationwide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the study analyzes the plan of further birth among young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The results show that the plan for first child is quite universal as no difference is found by their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owever, having plan for second child differs by the work status of husbands, presence of mother of young married women, and the sex of first child. The effects of first two factors suggest that young married women take into consideration stability of home economics and availability of care sharing. As for the plan for the child, the present and ideal sex composition of children appear most importa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echanism of fertility progression differs by the current number of children. Thus, consideration of such differential would help us deepen our understanding of fertility behaviors and need to reflect in the study. The study also argues tha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accompanied by to capture complexity of fertility decision making process.

Key Words: lowest low fertility, additional child, fertility plan and behavior, differential in having child, mechanism of fertility behavior